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4월 2일(음력 2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673 호

불자 후보 108명 출사표

전체 후보자 중 9% 차지…영남지역 출마자 최다

4 · 9총선에 출마한 1118명의 후보 가운데 불자는 누가 있을까?

제17대 정각회 회장으로 '10 · 27법난 특별법'을 여야 사이에서 중재해 통과시키고 '전통사찰법 개정' 등 교계 여론을 법안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이해봉(대구 달서을 · 무소속) 후보는 정가에서도 손꼽히는 불자다.

엄호성(부산 사하갑 · 친박연대) · 이계진(강원 원주 · 한나라당) 후보 등도 정각회 활동을 했었다. 조계종립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한 주호영(대구 수성을 · 한나라당) 후보는 불교계 중진스님들과의 교류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초 · 고성 · 양양 변호사회 회장으로 지역민의 법률구제에 앞장섰던 조동용 변호사(강원 속초고성양양 · 한나라당)도 신흥사, 백담사 등을 자주 찾는 불자. 특히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으로 납다른 신행활동을 펼쳤던 조문환(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 14순위), 씨티은행 부행장으로 한나라당 대변인에 영입된 조윤선(한나라당 비례대표 · 13순위) 후보도 활발한 불교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동국대종학생회장 출신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 통합민주신당) 후보도 정가와 불교계에 잘 알려진 불자.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 후보는 교육위원회만 3년을 지내 교육정책전문가로 불린다.

9, 10, 12,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7대 정각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용희(충북 보은옥천영동 · 자유선진당) 후보도 지역불교 활성화에 앞장서 주목받는다. 이외 TV 토론에서 대중적 관심을 받은 최재천(서울 성동갑) 후보도 불자다.

4 · 9 제18대 총선에 전국 245개 지역구에서 1118명이 출마했다. 정당별 지역구 공천자는 한나라당과 평화통일가정당이 각각 245명으로 가장 많았다. 통합민주당 197명, 민주노동당 103명, 자유선진당 94명, 친박연대 52명, 진보신당 34명, 창조한국당 12명, 기독당 3명, 국민실향안보당 2명, 구국참사람연합 1명, 통일한국당 1명, 직능연합당 2명, 무소속 127명이 18대 총선에 뛰었다. 이중 24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54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전국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앙선관위원회의 인터넷선거정보시스템과 불교정책기획단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집계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불자 후보는 108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9%다. 각 종교별 언론에서 집계했던 17대 국회의원의 종교별 의원수가 개신교 103명(34.4%), 천주교 70명(23.4%), 불교 34명(11.4%)였던 것에 비교된다.

불교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영남지방 전체출마자는 316명. 이중 불자후보는 43명으로 불자후보의 비율이 13%로 평균 9%를 상회했다. 하지만 대전 · 충청지역의 전체 출마자 119명 중 불자는 11명으로 9% 평균을 유지했을 뿐 호남지역 전체출마자 148명 중 불자후보는 7명으로 4%, 수도권 전체출마자 451명 중 26명으로 5% 등이었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연등축제 포스터 무료로 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연등축제와 봉축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제작 · 배포된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는 3월 28일 한글과 영어로 구성된 연등축제 · 봉축행사 포스터 5종과 디자인자료집을 선보였다. (02)2011-1744

여수령 기자

"템플스테이 정보 여기 다 모여요!"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템플스테이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센터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건립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과 조계사(주지 원학)는 3월 28일 조계사 일주문 앞 부지에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에서 네 번째), 교육원장 청화 스님, 총무부장 원학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을 비롯해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김충용 종로구청장,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체탈도첩'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효암 前 원장 등 4명 진각종단 대상 제기

법원이 체탈도첩 당한 진각종 효암 前 통리원장과 前 중앙종의회 의장 진산 정사, 위덕학원 이사장 혜인 정사 등의 징계에 대해 진각종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는 3월 17일 효암 前 원장 등 4명이 진각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체탈도첩 징계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들고 있는 각종 하자들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거나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해 12월 10일 강급 및 공권정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진각종 통리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신교도와 더불어 환영하며 종단 내부 현안을 사회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불교방송 통합제안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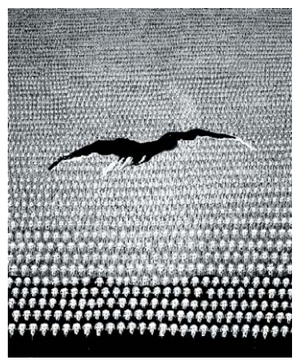
불교TV(btn) 회장 성우 스님이 불교방송(BBS) 이사장 영담 스님의 통합 제안을 거부했다.

성우 스님은 3월 27일 열린 14기 불교TV 정기 주주총회에서 "불교방송의 통합제안은 명분상 공감되나 설립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절차상 통합이 어렵다"며 "불교TV는 방송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은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교TV에 통합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여수령 기자

허허당의 세상만사



■ 아득한 비명

저 새를 보라
그리움이 하늘 가득하도다.
날개에도 꼬리에도...
아, 저 새가
저리도 아름다운 것은
분명, 그리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부처님 제일 공양 "청다향" 한국 최초 식품공학과연구 분석 (동국대학교 이광근 교수)

108참회 건강호흡 피톤치드 향으로!!

KBS ITV 생로병사의 비밀 "피톤치드" 방영에 이어
"뇌를 깨우는 108배" 도우는 향기나와 …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에서 자라는 편백, 솔, 쑥 등 산야초에 담긴 황금빛 향기발등을 증류로 뽑은 향이 불사의 새바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숲속 향기 속에서 108참회 수행으로 간절한 발원만큼 불사님의 건강성취도 소중하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부처님 공양물을 대상으로 식품공학 분석은 물론 실용특허를 취득하여 제품의 신뢰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백두대간 덕유산 청다향 합장

실용특허 제0164576호

■ 108참회도량 전용 향 문의 : 전화 055)941-1083 / 팩스 055)941-1084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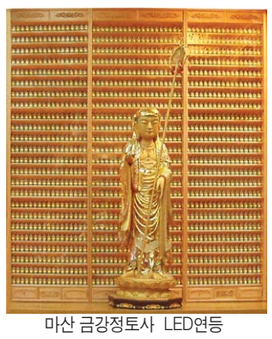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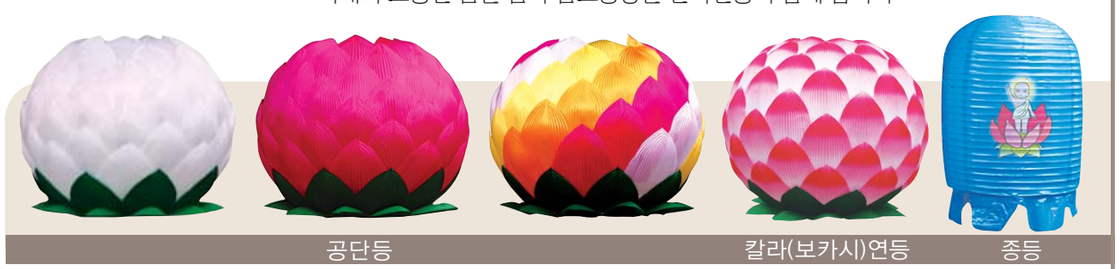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